

# 강진군, 2025년 국·도비 확보 '가속도'

보고회서 부서별 향후 계획 점검 3000억원 확보 목표 응모 논의 실무중심 애로사항 내용 공유 등 하반기 정기 분석 전략 재조정

전라남도 강진군이 '국·도비 3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본격적인 재정확보 전략에 착수했다.

강진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국·도비 확보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국·도비 3000억원 확보'라는 목표 아래 단순한 형식적 보고를 넘어 공모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실무 중심으로 논의한 자리로, 중앙정부의 재정 분산 기조와 치열한 공모 경쟁 속에서 지방정부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진군은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하

회각 부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모 및 건의 사업과 함께 미응모 사유, 추진 애로 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전라남도도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도 함께 분석됐다.

군은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중심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별 애로사항을 수렴해 대응 방안 마련과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하

반기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전략 재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국·도비 확보는 단순히 외부 재정지원 확보를 넘어, 강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하나씩 성과를 쌓아가겠다"며 "앞으로도 '기획에서 성과까지' 전주기적 국·도비 확보 전략을 수립·운영함으로써 국·도비 확보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제70회 현충일 기념 충혼탑 참배 목포교도소, 보존문화 확산 활동

목포교도소는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지난 4일 목포 현충공원을 방문,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참배 행사에서는 목포교도소장을 비롯한 직원 10여명이 참석해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했다.

목포교도소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 등 나라 사랑과,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남진 목포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6·25 전쟁 당시 수용자를 보호하고 기관 방호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선배 교도관들의 애국심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무안군 몽탄면, '꿈여울 목욕장' 개보수 완료...20일까지 시범 운영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에 소재한 꿈여울 목욕장이 노후 시설 개보수를 마치고 오는 20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던 꿈여울 목욕장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전면적인 환경 개선과 안전·위생 설비 보강이 이뤄졌다.

주요 개보수 내용은 △목욕탕 및 탈의실 전면 개보수 △배관 및 냉온수 설비 교체 △샤워기 및 위생 설비 개선 등이다.

시범 운영은 기존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성별 이용일은 여성 월·화·수요일, 남성 목·금요일로 구분된다.

몽탄면은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최정숙 몽탄면장은 "이번 개보수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목욕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범 운영을 거쳐 운영 전반을 점검한 뒤 하반기에 정식 재개장해 주민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무안군이 운영한 통합건강증진교실에서 지역민들이 유산소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 무안군, 모바일 헬스케어 연계 통합건강증진교실 성료

전라남도 무안군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지난 달 19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연계 '통합건강증진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 70명을 대

상으로 진행됐으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목표로 기획됐다.

교육은 △유산소 및 근력 강화 운동 △흡연 예방 및 절주 교육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이해 △영양교육 및 조리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가자들은 2주간 식습관, 체중, 걸음 수 등의 건강지표를 기록하고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생활습관을 체계적으로 점검했으며 대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관리를 받았다.

무안=김행언 기자

## 업무 협력 체계 강화 간담회 목포해경-가거경비대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에 위치한 전남경찰청 가거경비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목포해경 소속 3000톤급 경비함 태평양15호의 승조원들이 가거경비대에 직접 방문해 이뤄진 이번 간담회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양 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현황 공유 △열상감시장치(TOD) 등 운용장비 시연 △밀수·밀입국 등 해양 안보 범죄에 대응 매뉴얼 공유 △가거도 긴급피난 중국어선 대응 매뉴얼 공유 등이 논의됐다.

목포해경과 가거경비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 기상이 악화한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밀수·밀입국 등 해양 안보 범죄에 대비해 경비함정 순찰 강화, 조업선 대상 신고 제도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평양15호 강승남 함장은 "앞으로도 가거경비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 진도군, 올해 첫 '군민 행복 아카데미'에 방송인 김제동 초청

### 내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

전라남도 진도군은 10일 오후 2시에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의 올해 첫 강연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첫 강연에는 지난 2009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소통 공연(토크 콘서트)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이 '내 말이 그 말이예요'라는 주제로 지역민들을 만

났다. 강연 내용은 집에서 살림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느낀 김제동의 소소한 이야기가 담긴 '내 말이 그 말이예요'라는 책의 내용에서 기인

했다.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는 '민선 8기



군민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난해에 김정은 박사, 극단 깎지, 유인경 기자, 박지현 가수, 한문철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군민의 지성과 감성을 채우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

## 전남농협, '육포 데이' 맞아 소비촉진 운동

### 장흥한우육포 5000개 완판

농협전남본부와 장흥축협은 지난 4일 육포데이를 맞아 농협하나로마트 남악점에서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육포데이는 육(6)과 포(4)의 발음을 딴 6월4일로 국산 육포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날이다.

장흥축협은 올해로 14번째 육포데이 선포식을 진행하며 매년 국산 육포 소비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행사는 한우육포 무료시식 및 30% 할인 행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평소 접하기 힘든 최고 품질의 장흥한우 육포를 선보여 맛과 우수성을 알렸다.

마트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톨렛 경품행사에서는 한우·한돈 육포 등도 증정했다.

이와 함께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

시간 라이브커머스를 진행, 준비된 육포 5000개가 완판되면서 장흥한우육포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재은 장흥축협 조합장은 "정남진장흥한우육포는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이다"며 "소비자들의 많은 애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광일 본부장은 "우리 한우로 만든 가공품을 많이 이용해 주면 어려운 축산농가에도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전남 축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 남악·오룡 순환 버스 내일 개통 일 20회 운영...배차간격 약 30분

전라남도 무안군은 10일부터 남악·오룡 지역을 순환하는 공영버스 333번 신규 노선을 운행하며 지역 대중교통망 강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333번 신규 노선은 남악지구와 오룡1·2지구를 연결하는 순환 노선으로, 목포 간선버스(1·2·3번)가 오룡2지구를 운행하지 않는 교통 공백을 해소해 군민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33번 노선은 오룡차고지를 기점으로 △오룡2지구 신규 아파트 단지(시티프라디움, 푸르지오 파르세나,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힐스테이트) △남악 지역 주요 교육시설(오룡중, 남악고, 애향중, 목포대 평생교육원, 전남도립도서관) △남악모아엘가 △남악시장 △남악복합주민센터 등 남악신도시 주요 지점을 순환한다.

노선은 일 20회 운영되며 배차간격은 약 30분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기존 100번 좌석버스와 공공형버스 50번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효율성을 높였다.

자세한 운영시간과 노선은 무안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정보-남악신도시 시내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영의 무안군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노선은 군민들의 실제 이동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망 조사와 민원 접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